

심층분석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2026.04.19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심층분석보고서: 한화투자증권 본사영업-Trading 직무

1장. 한국 증권업 및 S&T/Trading 비즈니스 분석

1-1. 시장의 기본 정의와 자본시장법상 지위

한국의 증권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금융투자업** 6개 업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중 Trading 직무와 직접 연관된 영역은 투자매매업(자기자본을 이용한 상품 매매)과 투자중개업(고객 주문을 중개하는 업무)이며, 자기자본투자(PI), 세일즈&트레이딩, 파생상품 구조화, 채권 인수·유통, ETF LP(유동성공급자) 업무가 모두 이 범주에서 이루어집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증권사는 **61개사**이며, 이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755조 3,000억원**, 자기자본 합계는 약 110조원 수준으로 단일 금융 업권으로는 은행·보험 다음의 규모를 차지합니다. 증권업은 상업은행(여수신), 보험(보장), 자산운용(펀드 운용)과 달리 **자본시장의 직접 중개자(Direct Intermediary)**로서, 기업(발행자)과 투자자(수요자)를 연결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형 모험자본(Venture Capital) 공급 창구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 대비 **리스크 테이킹 역할**이 명시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 구조적 특징입니다.

1-2. 3단계 자본규제 체계와 제도적 진입장벽

한국 증권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수는 **자기자본 3조원(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투사) → 4조원(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 8조원(IMA, 종합투자계좌) 3단계 차등 규제**입니다. 종투사 지정 시 기업 대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가 허용되며, 초대형IB 지정 시 자기자본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IMA(Integrated Management Account, 종합투자계좌)는 2017년 도입됐으나 실제 사업자 지정은 2025년 12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2사가 1호로 지정되며 비로소 시장이 열렸습니다. IMA 체제에서는 발행어음 한도 제약이 사라지고 고객 예치금 전액을 통합 운용할 수 있어 **초대형사가 은행에 버금가는 조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5년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은 각 단계별 **2년 이상 영위 의무와 자기자본 연속 유지 요건**을 강화했으며, 이는 중형사의 단계별 점프업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초대형IB·IMA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비상장주식, 벤처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무 공급**해야 하는 규제가 2028년까지 단계 도입되어, 대형사는 정책 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규제 완화를 얻는 교환 구조가 정착됐습니다. 자기자본 2조원대 한화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이 경쟁의 링에 아예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며, 따라서 **다른 링(디지털자산·동남아·PI)**에서 승부하는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합니다.

1-3. 사상 최대를 경신한 2025년 업계 실적과 시장 모멘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25년 국내 61개 증권사 당기순이익은 **9조 6,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9% 증가**한 사상 최대치이며, 업계 평균 ROE는 **10.0%**로 은행업(6~7%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자산총액은 755.3조원으로 2023년 686.9조원 대비 약 10% 증가했고, 순자본비율(NCR)은 **915.1%**로 규제기준(100%)을 9배 이상 상회하며 산업 전체의 재무 안정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익의 견인차는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 수익**으로, 2025년 **9.1조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채권 평가이익이, 하반기에는 주식 평가이익이 순차적으로 기여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금리 인하→채권 강세)와 코스피의 구조적 상승장(2025년 한 해 +75.6%)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5년 **16.9조원(+57.1%)**, 2026년 1월에는 **62조 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9.1% 폭증했는데, 이는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시기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Trading 부문 관점에서 이러한 거래대금 폭증은 ① 자기매매 포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지선 회전을 증가, ② 세일즈트레이딩 플로우 증가, ③ 마켓메이킹 스프레드 수익 확대, ④ ETF LP 수익 확대 등 다층적 수익 확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익의 구조적 쏠림도 심화돼, 자기매매 이익 중 채권손익은 10.7조원(-19.9%)으로 감소하고 파생손익은 -8.7조원(적자 확대)으로 악화됐으며, 결국 **주식평가이익 단일 요인이 업계 이익의 상당 부분을 좌우한 것은 취약성으로 지적됩니다.**

1-4. 초대형IB 빅3·빅6 재편과 업계 서열 고착화

2025년은 초대형IB 체제의 분수령이 된 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2025년 12월 IMA 1호 사업자로 지정**되며 8조원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유이한 증권사가 됐고, NH투자증권도 2025년 9월 농협금융으로부터 6,500억원 조달을 통해 자기자본 8조 3,667억원으로 올라서며 **"초대형IB 빅3"** 진용을 완성했습니다. 이어 하나증권·키움증권·메리츠증권이 2025년 하반기 초대형IB 인가와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순차 획득하며 **"초대형IB 6사"** 체제가 구축됐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자기자본 5조 7,862억원, +20%)과 메리츠증권(7조 1,917억원, +17.7%)의 자본 증액 속도가 눈에 띄며, 이는 자본 축적이 곧 제도적 지위 상승으로 연결되는 한국 증권업의 **자본주의적 위계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발행어음 시장 규모는 한국투자증권 약 **18조원**, 미래에셋증권 **7.5조원** 수준으로 빅2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 IMA 1호 상품은 **1조 1,147억원 완판**을 기록해 시장의 폭발적 수요를 확인시켰습니다. 이 구조의 이면에는 **중형사의 상대적 소외**가 있으며, 한화투자증권·대신증권(자기자본 3조 7,312억원) 등은 종투사 진입조차 난망한 상황입니다. Trading 직무 지원자라면 이 위계 구조를 **산업 이해도 검증 문항**에서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중형사가 자본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 어떤 게임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전략적 질문에 대한 관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5. 토큰증권(STO) 법제화라는 구조적 변화

2026년 1월 15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국의 토큰증권 제도가 사실상 법제화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여 토큰 형태의 증권 발행을 합법화, ②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을 허용하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체제에서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 ③ 토큰증권 발행인의 공시 의무 명문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1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헤럴드경제는 "367조원 토큰증권 시장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수치는 부동산·미술품·지적재산권·선박·항공기·탄소배출권 등 실물자산 전체의 토큰화 가능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CG는 2030년 전 세계 토큰화 자산 시장 규모를 16조 달러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Trading 부문 관점에서 STO는 ① 장내·장외 유통 양면에서 새로운 중개 수수료 수익 창출, ② Structurer 역할로 신상품 기획·가격결정 수익 확대, ③ 마켓메이킹을 통한 스프레드 수익, ④ RWA 자산 편입한 ETF·펀드 LP 수익 등 다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이 **"Global No.1 RWA Hub"** 라는 비전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베팅**이며, 미국 Securitize PIPE 투자·KDX 컨소시엄 참여·쟁글/Kresus MOU 등은 모두 이 비전을 구체화하는 실행 포트폴리오로 해석해야 합니다.

1-6. 부동산PF 정상화와 신규 자본규제

2022~2024년 한국 증권업을 짓눌렀던 **부동산PF 리스크는 3분기 연속 축소**돼 **2025년 9월말 익스포저 177.9조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4.24%(-0.15%p)**로 안정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5%→10%→15%→20%**로 **4년간 단계 상향**하는 로드맵을 2025년 12월 발표했으며, 이는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이 변화는 증권사의 PF 관련 딜 규모를 구조적으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부동산금융에 집중해 온 메리츠증권·하나증권 등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압력을 높입니다. 역설적으로 2024년에 대규모 선제 총당금을 인식한 한화투자증권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PF 축소로 인한 상대적 반사이익**이 예상되며, 실제로 2025년 부동산금융본부 손익은 161억→364억으로 개선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됐고 프로젝트금융분부는 -325억에서 +222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증권사 신탁 ABCP에 대한 BIS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돼, 단순 신탁 구조 상품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정교한 구조화 역량**이 요구되는 시장으로 전환됩니다. Trading 부문은 이러한 규제 변화 속에서 ① 구조화채권(ELB·ELS·DLS) 설계 역량, ② 헷지 포지션 관리 정교화, ③ 장부 분류(Held-to-Maturity vs Available-for-Sale vs Trading Book)에 따른 자본 효율 최적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1-7. ETF 시장 폭발과 LP 비즈니스의 부상

2026년 1월 한국 ETF 순자산총액은 **315조 6,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었고, 이 중 액티브 ETF만 91.1조원에 달합니다. 개별 종목 ETF는 927개, 운용사는 24곳이 경쟁하는 구조로, 상위 3사(삼성·미래에셋·KB)가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며 중소 운용사는 차별화 테마·커버드콜·액티브 전략으로 틈새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Trading 부문 관점에서 ETF 시장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증권사 Trading 데스크는 ETF의 NAV와 시장가격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방향 호가를 지속 제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프레드와 차익거레가 안정적 수익원이 됩니다. 특히 해외주식 ETF·원자재 ETF·레버리지 ETF의 경우 각 기초자산 시장과의 헷지가 필요해 **Structurer와 Trader의 통합 역량**이 요구됩니다. 2026년 한경매거진이 선정한 유망 테마는 AI·반도체·엔터테인먼트·헬스케어·커버드콜·우주항공·방산·인프라 등으로 다변화됐으며, 이는 ETF 상품 개발 경쟁이 **단순 패시브 인덱스에서 액티브·구조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8. 금리환경과 FICC 트레이딩의 변곡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4월까지 **2.50%에서 7회 연속 동결**되며 완화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3.50~3.75% 수준에서 동결한 뒤 2026년 연내 1회 정도의 추가 인하만 예상되는 상황이며, **한미 금리역전 해소가 지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6년 만에 최저권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FICC(Fixed Income, Currencies, Commodities) 트레이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된 상태에서 **듀레이션 롱 포지션의 추가 이익 여력이 제한**되어 있어, 단순 방향성 베팅보다는 **상대가치(Relative Value, RV) 전략**—국고채 vs 크레딧채권, 단기물 vs 장기물, 국내채 vs 외화채—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둘째, FX 시장은 한미 금리차 변화가 원·달러 환율의 주요 변수가 되면서 **캐리 트레이드와 변동성 매매**가 활성화됩니다. 셋째, 파생상품 시장은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옵션 매도 전략의 수익성이 제한되고, 반대로 변동성 돌발 상황에 대비한 헷지 수요가 증가합니다. 2025년 업계 채권손익이 10.7조원으로 -19.9% 감소하고 파생손익이 -8.7조원으로 적자 확대된 것은 이러한 환경을 반영합니다.

1-9. 가치사슬과 수익구조의 다층 구조

증권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은 ① **발행시장(Primary Market)** —IPO·회사채 발행·유상증자·메자닌 등 기업 금융 영역, ②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브로커리지·자기매매·마켓메이킹 등 매매중개 영역, ③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고액자산가·퇴직연금·랩어카운트 등 자산관리 영역, ④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PI·PEF·VC·대체투자 영역, ⑤ **트레이딩·구조화(Trading & Structuring)** —FICC·파생·ETF LP·구조화상품 영역, ⑥ **리서치·컴플라이언스·IT** —지원 영역 등 6대 축으로 구성됩니다. 수익구조상 대형사 기준으로 자기매매 **35~45%**, 브로커리지 **25~35%**, IB **15~25%**, WM **10~15%** 비중이 일반적이며, 중형사는 상대적으로 브로커리지와 자기매매 비중이 높고 IB 비중이 낮은 특성을 보입니다. Trading 직무는 이 가치사슬 중 **자기매매와 구조화 영역의 핵심 수익원**을 창출하며, 브로커리지·IB·WM 부문과 긴밀히 연계됩니다. 예를 들어 IB가 인수한 회사채를 Trading이 유통시장에 분매하고, WM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이며, 이 과정에서 Trading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의 프라이싱-마켓메이킹-헷지 역량이 전사 수익성을 좌우합니다.

1-10.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구도의 재편

국내 증권업은 전통적 5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삼성·KB)에 더해 2020년대 들어 메리츠·키움·신한·하나·대신·한화·유안타·하이·BNK·IBK 등 10여 개 중형사가 경쟁하는 구조였으나, 2025년 초대형IB 6사 체제가 굳어지면서 "**빅6(한투·미래·NH·삼성·KB·하나 또는 메리츠·키움) + 중형사**" 2티어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스증권·카카오페이증권 등 **디지털 네이티브 신규 진입자**가 리테일 MTS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3티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JP모건·씨티·UBS 등 외국계 IB가 국내 지점 형태로 활동하며, 특히 Prime Brokerage·크로스보더 M&A·외화채 인수 영역에서 국내 대형사와 경쟁·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Trading 관점에서는 외국계 IB가 보유한 **글로벌 프라이싱 역량·해외 플로우 접근성**이 국내 대형사에 비해 우월한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며,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중형사는 **외국계와의 파트너십 또는 동남아 거점을 통한 우회적 글로벌 역량 확보**가 현실적 전략입니다.

1-11.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이상의 산업 분석을 종합하면, Trading 지원자가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프레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증권업은 자본규제 3단계 구조로 인해 중형사와 대형사의 게임 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시적 관점을 제시하고, 한화투자증권이 이 제약 속에서 **PI-디지털자산·동남아**라는 차별화 축을 선택한 전략적 합리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2025년 업계 사상 최대 실적의 이면에는 자기매매 의존도 심화와 채권·파생 부문 부진이라는 쓸림 위험이 존재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균형 있게 보여주어, 표면 숫자가 아닌 구조적 이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2027년 STO 본격 시행·2028년 모험자본 25% 의무 공급·2027년 PF 자기자본 규제 강화라는 3대 규제 일정이 Trading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미래 관점을 제시하고, 한화투자증권이 이 변화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2026년 코스피 거래대금 62조원·ETF 315조원·STO 시장 367조원이라는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고 활용하면, 거시 이해도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2장. 경쟁사 및 한화투자증권 포지셔닝

2-1. 자기자본 빅10 구도의 재편과 체급 차이의 본질

2025년 3분기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랭킹을 보면 **한국투자증권 12조 219억원(+36%)**이 압도적 1위로 올라섰고, 미래에셋증권이 10조 3,105억원으로 뒤를 따르며 "**10조 클럽**"을 형성했습니다. 이어 NH투자증권 8조 3,667억원(+14.6%, 농협금융 6,500억원 조달), 삼성증권 7조 3,863억원, 메리츠증권 7조 1,917억원(+17.7%), KB증권 6조 8,645억원, 하나증권 6조 1,057억원, 키움증권 5조 7,862억원(+20%), 신한투자증권 5조 6,311억원, 대신증권 3조 7,312억원 순으로 이어집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투자증권이 1년 사이 자기자본을 3조원 가까이 늘리며 단독 1위로** 올라섰다는 사실로, 이는 2025년 순이익 2조 135억원을 대부분 사내유보로 전환한 결과이며, 동시에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자본 축적 전략**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메리츠·키움은 각각 4·8위로 체급을 점프했으며, 메리츠는 최희문 전 대표 시절부터 이어진 **압축된 고수익 구조**가 자본 증식으로 이어진 반면, 키움은 **리테일 브로커리지 M/S 1위와 자산운용 자회사 시너지**가 기반이 됐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연결 자기자본 2조 682억원(+21.2%)으로 **업계 11위에** 위치하며, 10위 대신증권과도 약 1조 7,000억원의 격차가 존재해 10대 증권사 진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급 차이의 본질은 단순히 자본 규모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 확대 능력**의 차이이며, 자기자본 10조원 증권사가 발행어음·IMA를 통해 200%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운용 자산은 30조원에 달해, 자기자본 2조원 증권사의 15배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이상의 운용 여력을 갖게 됩니다.

2-2. 한국투자증권의 포지셔닝과 학습 시사점

한국투자증권은 2025년 순이익 **2조 135억원(+79.9%)**, ROE 14.0%로 창사 최초 2조 클럽에 진입한 유일한 증권사입니다. 발행어음 잔고 21.5조원으로 업계 1위, IMA 1호 상품 1조 1,147억원 완판이라는 성과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4분기 운용손익이 3분기 3,921억에서 4분기 2,354억으로 -40% 축소되며 **Trading 의존도 증가에 따른 분기 변동성 증대**가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강점은 ① **김남구 회장 리더십의 장기 자본 축적 전략**, ② **자산운용·저축은행·캐피탈 등 한국금융지주 내 수직 계열화**, ③ **발행어음 시장 선점**을 통한 **조달 우위**, ④ **해외(한국투자파트너스·한국투자증권 홍콩·인도네시아 등) 현지화 네트워크** 등입니다. Trading 관점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종합 커버리지 모델**을 추구하며, FICC·주식·파생·구조화·PI 전 영역에서 전문 데스크를 운영합니다. 한화투자증권 지원자에게 한국투자증권은 **"도달해야 할 목표"** 라기보다는 **"다른 게임을 하는 경쟁자"** 로 인식해야 하며, 자기자본 2조대에서 12조대로 직접 점프할 수 없는 만큼 **상당한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2-3. 미래에셋증권의 트레이딩 통합 전략과 글로벌 PI

미래에셋증권은 2024년 8월 **S&T·채권·파생·PI**를 통합한 **'트레이딩 사업부'**를 신설하며 조직을 혁신했습니다. 이는 "IB 반등이 어려운 시기 S&T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박현주 회장의 판단을 반영하며, 기존에 분리됐던 기능을 한 본부장 하에 통합해 **상품 간 시너지와 포지션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미래에셋증권의 채권이자 수익은 2,813억원, 주식운용 수익은 476억원 수준으로 운용 다각화가 진행됐으며, 특히 **xAI·스페이스X 등 비상장 PI 포지션이 2026년 평가이익 1조원 이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이는 박현주 회장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미래에셋의 글로벌 프리젠테이션이 결합된 독특한 PI 모델로, 국내 증권사 중 **해외 비상장 테크 기업 PI**에 이만한 규모로 노출된 사례는 미래에셋이 유일합니다. Trading 관점에서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PI + 국내 FICC + 운용 자회사(미래에셋자산운용) 시너지"**의 삼각편대를 구축했으며, 한화투자증권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중형사의 글로벌 성장 모델**을 보여줍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10조 클럽에 진입해 자기자본 레버리지 효과가 한화와 다르며, 한화는 **현지화 심화(동남아 Pinetree-Ciptadana 심화 운영)**와 **디지털자산 신영역 선점**을 통해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4. NH·삼성·KB·메리츠·키움의 차별화 축

NH투자증권은 2025년 9월 자기자본 8조원 돌파로 초대형IB 빅3에 진입했으며, 전통적 IB·ECM(Equity Capital Market)·채권인수 강점에 더해 **STO 비전그룹**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의 자금력과 전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리테일·기관·IB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종합 증권사 모델**의 전형입니다. **삼성증권**은 삼성그룹 후광과 리테일 WM(고객자산가, PB) 영역에서 업계 최상위권 입지를 가지며, Prime Brokerage·헤지펀드 서비스가 강점입니다.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계열사와의 자산운용 시너지가 구조적 경쟁우위입니다. **KB증권**은 KB금융지주 계열로 은행 채널을 활용한 방카슈랑스·퇴직연금·리테일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며, 2025년 IB 실적이 V자 회복하며 TOP2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금융·FICC OTC 파생·구조화상품**에 특화된 고수익 모델이 강점이며, 조정호 회장의 오너 리더십과 최희문 전 대표의 경영 혁신이 기반이 됐습니다. **키움증권**은 리테일 브로커리지 M/S 1위로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알고리즘 트레이딩 플랫폼과 HTS 기술력**이 차별화 요소입니다. 이들 경쟁사 각각은 **"특정 영역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화투자증권이 들어설 수 있는 빈틈은 **"디지털자산·RWA·동남아 크로스보더"**라는 미개척 영역입니다.

2-5. 한화투자증권의 한화그룹 금융계열 좌표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한화그룹 금융계열의 지배구조는 (주)한화(43.24%) → 한화생명보험 → 한화자산운용(100%)-한화손해보험(51.4%)-한화저축은행(100%) → 한화투자증권(한화자산운용 보유 46.08%)으로 수직 편제되어 있습니다. 즉 한화투자증권은 최종 모회사인 (주)한화로부터 4단계를 거친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 주주는 한화자산운용입니다. 이 구조는 ① 한화그룹 전체 자본이 증권사로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제약, ② 한화생명과 한화자산운용의 사결정이 증권사 전략에 결정적 영향, ③ 계열사 간 자본·영업 시너지가 이론적 가능성에 머무르는 한계를 내포합니다.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CGO, Chief Growth Officer)**이 금융 3총사(생명·손보·증권)를 총괄하는 구조이며, 2024년 10월 한화저축은행 지분 전량 인수(1,785억원), 2025년 10월 캐롯손해보험의 한화손해보험 흡수합병으로 "증권·손보·운용·저축은행+GA(General Agent)" **사실상 금융지주 진용**이 완성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주)한화는 테크·라이프 사업을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로 **인적분할**하기로 의결했으나, 금융 계열은 존속법인에 잔류해 계열분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더벨은 "김동원 사장이 한화에너지 지분 20%를 남긴 것은 한화생명 계열분리를 위한 협상 카드"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중장기적으로 **한화 금융계열의 독립적 지주회사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6. 자본확충 없는 이익 기반 자본 증가의 의미

한화투자증권의 2025년 자기자본 증가(1.7조원→2조 682억원, +21.2%)는 **유상증자·신증자본증권 발행 없이 순전히 이익잉여금 축적으로 달성**된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① 2024년 부동산PF 대손충당금 선제 반영으로 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 ② 2025년 영업이익이 40억에서 1,477억으로 폭증(+3,616%)하며 이익유보 여력 확대, ③ 4년 연속 무배당(2022~2025 결산) 지속으로 사내유보율 100% 달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녹색경제신문은 "이익 3600% 폭증에도 배당 0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했으며, 소액주주 관점에서는 주주환원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2026년 3월 **한화솔루션이 2조 3,976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이는 화학·방산 계열에 자본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으로 **금융 계열로의 자본 재투입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결국 한화투자증권은 당분간 **자체 수익 기반 성장**을 해야 하는 구조이며, 이는 Trading 부문의 이익 기여가 회사 전체 성장에 더욱 중요해지는 요인이 됩니다. 자본 여력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자본 효율적(Capital-light) 비즈니스 모델**—세일즈트레이딩, 수수료 기반 Structuring, LP 비즈니스, 디지털자산 중개—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해지며, 이는 한화투자증권의 현 전략 방향과 정합적입니다.

2-7. 최근 6개월 핵심 이슈 - 장병호 대표 체제와 디지털 가속

2025년 9월 1일 장병호 신임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장 대표는 1967년생,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1995년 한화투자증권에 입사해 한화차이나·한화큐셀(상하이)·한화생명 금융비전Unit을 거친 **글로벌 경험과 그룹 간 가교 역량**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전임 한두희 대표(2023.3~2025.8)는 Trading 본부장 출신의 운용 전문가였으며, 후임 장 대표는 **그룹 전략·글로벌 사업·디지털 전환을 총괄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리더**라는 점에서 방향성 전환이 감지됩니다. 취임 이후 주요 이슈를 시계열로 보면, 2025년 10월 **미국 Securitize PIPE 투자(기업가치 12.5억달러 인정)**, 11월 UAE Abu Dhabi Finance Week 2025에서 **Kresus 디지털 지급 기업과 MOU**, 12월 **2026 경영전략회의에서 Global No.1 RWA Hub 비전 공식 선포 및 미래전략실 신설**, 2026년 1월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Web3 리서치 전문가 쟁글(Xangle)과 MOU**, 1월 23일 **두나무 지분 5.94% 매각 계획 없음** 공시, 2월 **공모채 1,500억원(최대 5,000억원 증액 가능) 발행** 등입니다. 이러한 이슈의 밀도는 **중형사로서는 이례적 수준의 글로벌 노출**이며, 장병호 대표의 취임 초기 100일이 실질적 전환점이 됐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10월 발표된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376.6억원(+578%)**, 순이익 214.5억원(+533%)으로 발표됐고, 신용등급은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3사 모두 **AA-(안정적)**를 유지했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2-8. 경쟁사 비교 프레임과 전략적 포지셔닝

경쟁사 대비 한화투자증권의 포지셔닝을 구조화하면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자본규모 축**에서는 한국투자증권(12조)·미래에셋(10조)·NH(8조)가 초대형IB 빅3를 형성하고, 삼성·메리츠·KB·하나·키움의 빅4~8을 형성하며, 한화투자증권은 11위로 종투사 진입조차 난망한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 축**에서는 "초대형IB(자본 레버리지 게임)", "리테일 M/S(키움·토스)", "부동산금융·OTC 파생(메리츠)", "그룹 시너지 WM(삼성·KB)", "종합 커버리지(한투·미래)" 등으로 차별화되며,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동남아·PI 특화 중형사**" 라는 독자 포지션을 추구합니다. 셋째, **성장 전략 축**에서는 대형사가 **국내 제도권 확장**(발행어음·IMA·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하는 반면, 한화투자증권은 **해외 우회 성장**(동남아 3국 거점, 미국 Securitize 제휴, UAE 지갑 MOU)과 **신시장 선점**(STO/RWA)을 추구합니다. 넷째, **인력 전략 축**에서는 대형사가 **대규모 정기공채**를 운영하는 반면, 한화투자증권은 '**Buidler(비들러)**' 경력 채용을 강조하며 근속연수·직급보다 문제해결 경험을 중시합니다. 지원자는 이 네 가지 축에서 한화투자증권이 선택한 포지셔닝의 **전략적 합리성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경쟁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화투자증권의 자본 11위는 Trading 지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는 역설적 관점입니다. 자본 1~3위 대형사는 **기존 시스템과 인력의 관성**이 강해 신사업 전환이 느리고, 신입/주니어 트레이더가 **의사결정 기여도**를 높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중형사는 **신규 영역(RWA·STO·동남아)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니어 트레이더가 데스크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면접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이 자본 11위라는 사실을 단점이 아닌 **차별화 기회**로 해석하며, 장병호 대표 체제의 Buidler 문화에서 Trading의 신상품·신전략 개발에 직접 기여하겠다"는 서사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금융계열 재편 시나리오(김동원 사장 체제의 계열분리 가능성)"를 언급할 수 있으면 **심층적 산업 이해도**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사 분석 질문에서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3장. 한화투자증권 심층 분석

3-1. 최근 3년 재무 추이의 V자 반등 구조

한화투자증권의 최근 3년 재무 추이는 **전형적인 V자 반등 궤적**을 보여줍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3년 1조 9,700억원에서 2024년 2조 5,000억원, **2025년 3조 900억원(+23.9%)**으로 꾸준히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2023년 314억에서 2024년 40억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2025년 1,474억원(+3,616%)**으로 극적 회복을 이뤘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548억(적자)**, 2023년 92억, 2024년 389억, **2025년 1,018억(+161.6%)**으로 4년 연속 개선 궤적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은 1.7조→2조 682억(+21.2%), 총자산은 14조→17조 3,579억(+23.8%)으로 증가했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 848.7억·순이익 664.8억, 3분기 영업이익 376.6억(+578%)·순이익 214.5억(+533%), 4분기 역산 영업이익 약 249억·순이익 약 139억으로 **상반기 집중형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상반기 채권시장 강세와 주식시장 랠리가 동시에 기여한 결과입니다. 2022~2024년 부진의 주원인은 **부동산PF 대손충당금 선제 인식**이었으며, 이 기간 중 IB부문 손실 누적이 약 8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제적 손실 인식**이 2025년 이후 경쟁사 대비 **깨끗한 재무상태**로 전환되는 기반이 됐으며, 이는 전임 한두희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3-2. 사업부문별 손익 구조와 Trading의 결정적 부활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2025년 사업부문별 손익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B 부문은 순영업수익 809억원·손익 491억원**(2024년 -249억 손실 대비 740억 턴어라운드), **Trading 부문은 순영업수익 789억원·손익 415억원**(전년 대비 +119억), 특히 **전략운용본부의 PI(자기자본투자) 순영업수익이 37억원에서 306억원으로 약 8배 급증**하며 회사 전체 실적 반등의 결정적 엔진이 되었습니다. WM(Wealth Management) 부문과 Wholesale 부문, Trading 부문은 국내 증시 상승과 거래대금 확대(일평균 16.9조원, +57.1%)의 직접적 수혜를 입었습니다. 부동산금융본부 손익은 2024년 161억에서 2025년 364억으로 226% 증가했고, 프로젝트금융본부는 -325억에서 +222억으로 547억원의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해외 자회사 실적도 견조해, 베트남 Pinetree는 **영업수익 216억(+26%)·세전이익 43억**, 인도네시아 Ciptadana는 세전이익 29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해외 비중 확대 전략의 조기 성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략운용본부 PI 손익 306억원은 **자기자본 2조원대 증권사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규모**로, 이를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로 환산하면 PI 데스크의 ROE는 15%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Trading 지원자 관점에서 이는 **한화투자증권이 PI 영역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며, 면접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핵심 숫자입니다.

3-3. 장병호 대표 체제의 Global No.1 RWA Hub 비전

장병호 대표는 2025년 12월 2026 경영전략회의에서 **"Global No.1 RWA(Real-World Asset) Hub"** 비전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RWA는 부동산·미술품·지적재산권·선박·항공기·탄소배출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하여 온체인에서 유통·중개하는 사업 모델을 의미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Ondo Finance·Centrifuge·MakerDAO 등이 수조 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RWA Hub 비전은 STO 법제화(2027년 1월 시행 예정)를 앞두고 **UAE·싱가포르·미국을 잇는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을 골자로 하며, 이는 전통 증권사가 시도하지 못한 **크로스보더 디지털 자산 중개 모델**입니다.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신설**돼 STO·온체인·글로벌·신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혁신실을 디지털혁신부**로 격상, **리서치센터 내 디지털자산리서치팀** 신설, **디지털 L&D센터** 개설 등 조직 재편이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한화 공식 경력채용 페이지는 "근속연수나 직급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봤는지"를 강조하며 **'Buidler(비들러, Builder의 Web3식 표기)'** 형 인재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Trading 지원자에게 이 비전은 ① 기존 채권·주식·파생 트레이딩에 더해 ② 토큰증권 마켓메이킹, ③ RWA 기초자산 구조화, ④ 크로스보더 디지털자산 중개 등 **새로운 직무 영역의 출현**을 의미하며, 5년 후 한화투자증권 Trading 데스크는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4. 차별화 포인트 1 - 디지털·MTS 고도화

한화투자증권의 첫 번째 차별화 축은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2024년 기존 SmartM과 STEPS를 통합한 신규 MTS가 출시됐고, 뒤이어 **Toss 앱 내 계좌개설·채권/ELB 매매·연금ETF 자동매수** 기능이 탑재되며 디지털 네이티브 고객 접점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Toss증권과의 경쟁이 아닌 **Toss 플랫폼을 활용한 간접 리테일 접근**이라는 독특한 전략이며, 한화투자증권은 자체 MTS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Toss의 2,000만 MAU에 접근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Python·R 기반 퀀트 분석 환경 구축, Bloomberg Terminal·Refinitiv Eikon 통합 데이터 환경, 사내 데이터레이크**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리서치센터의 디지털자산리서치팀은 글로벌 주요 리서치 하우스(Messari·Delphi Digital·Galaxy Research)와 견주는 **한국 시장 특화 Web3 리서치**를 목표로 하며, 2026년부터 정기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Trading 관점에서 디지털 인프라는 ① 데이터 기반 매매 전략 고도화, ② 백테스팅 환경 개선, ③ 알고리즘 트레이딩 구현, ④ 리스크 관리 자동화 등 직접적 경쟁력 요소이며, 한화투자증권의 중장기 투자 방향이 Trading 데스크에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3-5. 차별화 포인트 2 - STO/RWA 선점 포트폴리오

두 번째 차별화 축은 **STO/RWA 선점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딜은 2025년 10월 미국 **Securitize**에 대한 **PIPE 투자**로, Securitize는 글로벌 토큰증권 플랫폼 1위 기업이며 이번 투자로 기업가치 12.5억달러(약 1.7조원)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 투자로 ① Securitize의 글로벌 STO 발행·유통 네트워크 접근, ② 미국·싱가포르 규제 프레임워크 학습, ③ 향후 한국 STO 시장에서의 기술 파트너십 우선권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에서는 **INF컨설팅과 STO 플랫폼 구축 계약**, **KDX 컨소시엄 참여**(한국거래소가 주도하고 미래에셋·KB·키움·메리츠 등 20여 증권사와 조각투자 전문기업 바이셀스탠다드가 합류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 **Kresus 디지털지갑 MOU**(UAE 기반), **쟁글(Xangle) MOU**(Web3 리서치 전문사) 등 촘촘한 파트너십이 구축됐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의미는 **한화투자증권이 RWA 가치사슬의 각 단계—발행 플랫폼 (Securitize)-거래소(KDX)-지갑(Kresus)-리서치(쟁글)-구조화(내부)—에 모두 포지션을 확보했다는 점이며, 이는 초대형 증권사도 이만큼 포괄적으로 구축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Trading 지원자는 이 점을 "중형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첩하게 신영역에 포지셔닝할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6. 차별화 포인트 3 - 두나무 지분 5.94%의 숨은 자본

세 번째 차별화 축은 **두나무 지분 5.94% 보유**라는 독특한 자산 포지션입니다. 두나무는 업비트 운영사로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한화투자증권은 2021년 취득원가 약 583억원으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지분의 평가가치는 2026년 1월 기준 약 **9,090억원**으로 취득원가 대비 약 15배 상승한 상황이며, 2026년 1월 23일 한화투자증권은 "매각 계획 없음"을 공시하며 **장기 보유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지분은 ① **숨은 자본 버퍼**로서 자기자본 2조원대 한화투자증권의 실질 자산 가치를 크게 높이며, ②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의 직접 수혜** 경로를 제공하고, ③ **두나무와의 사업 시너지**(향후 STO·RWA·전자지갑 협업 등)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두나무가 2026~2027년 IPO를 추진할 경우 한화투자증권은 ① 대규모 평가이익 실현, ② IPO 주관사 경쟁 참여, ③ 지분 매각을 통한 자본확충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경쟁사 관점에서 이만한 디지털자산 관련 지분을 보유한 전통 증권사는 거의 없으며, 이는 **한화투자증권의 독특한 자산 구조**를 형성합니다. Trading 관점에서 이 지분은 직접적 수익 기여는 없으나, **전사 자본 여력의 확장**을 통해 Trading 한도 확대와 리스크 테이킹 여력을 뒷받침하는 간접적 효과를 가집니다.

3-7. 차별화 포인트 4 - 동남아 금융벨트 완성

네 번째 차별화 축은 **동남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벨트**입니다. 베트남에서는 **Pinetree Securities**가 3년 연속 고성장을 달성해 2025년 Vietnam Best Retail Broker TOP 10에 선정됐으며, 현지 리테일 브로커리지 시장에서 모바일 기반 증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Ciptadana Securities**를 Lippo 그룹으로부터 인수한 후 자산운용 자회사 지분도 추가로 80% 인수해 **IB·리테일·자산운용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Pinetree Singapore를 설립해 ASEAN 지역 허브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RWA Hub의 지역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동남아 벨트의 의미는 ① **한국 기관 고객의 크로스보더 수요 충족**(동남아 주식·채권 매매, 환위험 헷지), ② **동남아 고액자산가의 한국 자산 접근 창구**(역방향 수요), ③ **글로벌 RWA 자산의 동남아 유통 채널** 기능입니다. 한국 대형 증권사들도 동남아 거점을 보유하지만, 한화투자증권처럼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 3국 동시 보유 + 자산운용·브로커리지 통합 + 현지 M&A 성공**의 조합은 차별화 요소입니다. Trading 관점에서 동남아 벨트는 ① 현지 채권·주식 운용 기회, ② FX 크로스보더 트레이딩, ③ 한·동남아 상관관계 기반 RV 전략 등 새로운 수익 원천을 제공합니다.

3-8. 리스크 요인 1 - 부동산PF 잔존 익스포저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한화투자증권이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리스크는 **부동산PF 잔존 익스포져**입니다. 2024년 대규모 선제 총당금으로 대부분을 털어냈으나, NICE신용평가는 "2025년 9월말 PF 익스포져 약 1조원으로 자기자본의 52.8%,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 3,100억원" 등 고위험 자산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산건전성 지표(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자산)는 2023년말 19.3%에서 2025년 9월 6.4%로 크게 개선됐으나, 동종 중형사(4~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 3,100억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 장기 침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며, 향후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rading 부문과의 연결 고리는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① PF 부실 재발 시 전사 리스크 한도 축소로 Trading 한도도 영향, ② 신용등급 하향 시 자금조달 비용 상승, ③ 주가 하락 시 기관 고객의 한화투자증권 카운터파티 리스크 평가 악화 등 간접적 영향이 존재합니다. 다만 2026년 2월 공모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점, 3대 신용평가사가 AA-(안정적) 등급을 유지한 점은 시장이 한화투자증권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9. 리스크 요인 2 - 자본 적정성의 구조적 제약

두 번째 리스크는 **자본 적정성의 구조적 제약**입니다. 순자본비율(NCR)은 2024년 670%에서 2025년 상반기 743%, 2025년말 863%로 개선됐으며, 법정기준(100%) 대비 8.6배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나 대형 증권사와 비교하면 한국투자증권 3,839%, 미래에셋·KB·NH 1,500~2,50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NCR의 의미는 **자기자본 대비 총위험액의 배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추가 리스크 테이킹 여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863% 수준이라는 것은 법적 여유는 충분하지만, **실질적 Trading 한도 확장 여력은 대형사 대비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근본적인 제약은 자기자본 2조원대로는 종투사(3조)·초대형IB(4조)·IMA(8조)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는 ① 발행어음을 통한 저비용 조달 불가, ② 프라이م 브로커리지 업무 불가, ③ 기업신용공여 한도 제한 등 구조적 수익 확장 제약을 의미합니다. 4년 연속 무배당도 주주환원 이슈로, 2026년 이후 실적이 회복됨에 따라 배당 재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내유보를 통한 자본 축적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변수입니다.

3-10. 리스크 요인 3 - 신사업 전환의 실행 리스크

세 번째 리스크는 **RWA-STO 신사업 전환의 실행 리스크**입니다. 비전과 파트너십은 매력적이지만, 실제 수익 창출까지는 ① 법제화 일정 지연 가능성(2027년 1월 시행이 지연될 경우), ② 기술 인프라 구축의 복잡성, ③ 기존 조직과 신규 조직 간 문화적 충돌, ④ 전문 인재 확보 경쟁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장병호 대표 체제의 Buidler 문화가 기존 한화 DNA와 얼마나 조화롭게 융합될 것인지는 **중장기 과제**이며, 만약 신사업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둘 경우 한화투자증권은 **차별화 축의 공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관점에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가 STO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경우 **자본력 우위**로 한화투자증권의 선점 효과가 희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술·네트워크·브랜드의 삼중 해자**를 지속 강화해야 합니다. Trading 지원자는 이러한 리스크를 단순히 우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가"** 라는 건설적 관점에서 면접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1.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한화투자증권 심층 분석이 Trading 지원자에게 시사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V자 반등은 일회성 기저효과가 아닌 전략적 재구조화의 결과"**로, 2024년 선제 총당금 → 2025년 이익 정상화 → 2026년 이후 성장 궤도라는 구조적 시나리오를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전략운용본부 PI 손익 37억→306억(8배 급증)"**이라는 숫자는 Trading 지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데이터로, Trading 부문이 회사 실적 반등의 결정적 엔진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셋째, **"RWA Hub 비전은 Trading 직무의 미래 영역 확장을 의미"**하며, 지원자는 현재 역량에 더해 디지털자산·STO·크로스보더 영역에 대한 학습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넷째,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두나무 지분·동남아 벨트·Securitize 투자는 한화투자증권만의 독특한 자산"으로, 경쟁사가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차별화 요소입니다. 다섯째, "자본 규모의 제약을 차별화 전략으로 전환한 사례"로 한화투자증권을 해석하고, 지원자 본인의 커리어에도 이러한 제약을 기회로 전환하는 사고방식을 투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Trading 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4-1. 한화그룹 3대 핵심가치의 형성 배경과 의미

한화그룹은 2012년 김승연 회장 주도로 창업 이념 '신용과 의리'를 성장의 바탕으로 재확인하며 **도전(Challenge)·헌신(Dedication)·정도(Integrity)** 3대 핵심가치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는 1952년 설립된 한국화약이 폭약·방산·에너지·금융·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축적한 기업 문화를 **체계적 가치 체계로 정리**한 것으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평가·승진·채용의 실질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전**은 "기존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정의되며, 한화의 방산 사업 확장·태양광 진출·우주항공 진입 등이 이 가치의 실천 사례로 제시됩니다. **헌신**은 "회사·고객·동료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자세"를 의미하며, 한화그룹 특유의 **장기근속 문화와 그룹 간 인력 로테이션**이 이 가치의 조직적 표현입니다. **정도**는 "자극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태도"로 정의되며,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금융 라이선스 사업자로서의 공공성**과 결부되어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준수로 구체화됩니다.

4-2. Trading 직무와 한화 핵심가치의 일대일 매핑

Trading 직무 관점에서 한화 3대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 직무 역량으로 매핑됩니다. **정도(Integrity)**는 **손절원칙 준수·내부자거래 금지·차이니즈월 존중·스트레스 환경에서의 윤리적 판단**으로 구체화되며, 이는 Trading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트레이딩 업계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트레이더는 결국 큰 손실로 퇴출된다"**는 격언이 있으며, 이는 정도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헌신(Dedication)**은 **딜 클로징까지의 팀플레이·세일즈-트레이더-리서치-리스크팀 간 협업·장시간 근무 환경에서의 책임감**으로 구체화됩니다. Trading 데스크는 시장 개장 전 모닝미팅부터 마감 후 P&L 정리까지 10시간 이상 집중 근무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 직업이 아닌 **소명 의식(Vocation)**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도전(Challenge)**은 **신상품 개발·신전략 리서치·새로운 시장 진출·기존 모델의 혁신**으로 구체화됩니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의 RWA Hub 비전과 결합하면, 도전은 **"전통 Trading 영역을 넘어서 디지털자산·크로스보더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면접에서는 이 세 가치를 각각 구체적 경험 사례와 연결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가치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Trading 직무에서 이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3. 한화투자증권 조직문화의 이중성

블라인드·잡플래닛·잡코리아 등 현직자·전직자 리뷰 플랫폼을 종합하면, 한화투자증권 조직문화에는 **"업무 강도 高 vs 연봉 중소형사급"**이라는 갭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장점으로 언급되는 요소는 ① "주 52시간·PC-OFF 제도 준수", ② "휴가 사용 자유로움", ③ "한화그룹 계열사 복지(리조트·콘도·의료보험)", ④ "내부 교육 프로그램 충실", ⑤ "여성·육아 친화 문화"이며, 단점으로 지적되는 요소는 ① "사내정치와 파벌 문화", ② "변화 거부 문화와 보수성", ③ "과장급 이상은 안착 좋으나 주니어는 발판 삼아 이직", ④ "성과 대비 보상 저조", ⑤ "대형사 이직 시 연봉 상승 폭 큼" 등입니다. 잡플래닛 평점은 2.8/5 수준(리뷰 191건 기준)으로 업계 중위권이며, 2022년 사업보고서 기준 본사영업 평균 연봉은 **8,702만원**, 캐치(Catch) 기준 신입 초봉은 약 6,370만원으로 조사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다. 이는 동종 대형사(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 등)의 초봉 7,000~8,000만원대 대비 약 10~15% 낮은 수준입니다.

4-4. 장병호 체제의 문화 전환

다만 2025~2026년 장병호 대표 체제 하에서는 **조직문화의 질적 전환**이 감지됩니다. 공식 경력채용 페이지는 "근속연수나 직급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왔는지"를 강조하며 **'Buidler(비들러)' 문화**를 지향한다고 명시합니다. 'Buidler'는 Web3·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품을 만드는 개발자"를 지칭하는 은어로, 이를 기업 가치로 수용한 것은 **전통 증권사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미래전략실 신설·디지털 혁신부문 격상·디지털자산리서치팀 신설 등 조직 재편도 이러한 문화 전환의 구체적 실행이며, 채용 트랙도 **정기 공채 중심에서 수시 경력채용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이러한 **전환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통 한화 DNA(규율·정통성·장기관점)와 신규 DNA(디지털·글로벌·민첩성)의 **교차 시점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임을 어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 Trading의 기본기(리스크 관리·시장 이해·팀 협업)를 갖추면서도, 신영역(Python·백테스팅·디지털자산 이해)에 대한 학습 의지와 경험을 보유한 융합형 인재"라는 자기 규정이 효과적입니다.

4-5. Trading/S&T 도메인이 선호하는 8대 역량

Trading 및 S&T(Sales & Trading) 도메인에서 성과를 내는 인재의 공통 역량은 업계 현직자 인터뷰와 업종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 8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리스크 감각**은 VaR·스트레스테스트·손절규율을 단순 지식이 아닌 **본능적 감각**으로 내재화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우수한 트레이더는 포지션을 진입하기 전에 이미 손절 라인을 설정하며,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반응합니다. 둘째, **수학·통계 감각**은 Duration·Convexity(채권), Greeks(Delta·Gamma·Vega·Theta·Rho, 옵션), Volatility Surface(변동성 곡면), Correlation Matrix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내성**은 매 틱마다 P&L이 변동하는 환경에서 **침착성을 유지**하고 **장기적 판단**을 내리는 심리적 체력을 의미합니다. 넷째, **시장 호기심**은 매크로 경제 지표부터 개별 기업의 미시 정보까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결짓는 지적 습관**입니다. 다섯째, **순발력**은 호가 제시·포지션 조정의 속도로, 특히 세일즈트레이딩에서는 고객 요청 후 수 초 내 프라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원칙·규율**은 로스컷·포지션 한도·거래 승인 절차를 예외 없이 준수하는 태도입니다. 일곱째, **팀플레이**는 세일즈-트레이더-리서치-리스크팀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구성원들과 건설적으로 협업하는 능력입니다. 여덟째, **프로그래밍/데이터 역량**은 Python·VBA·SQL·Bloomberg API 등 도구를 활용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능력입니다.

4-6. 매 순간 손익이 갈리는 환경의 심리적 특수성

서울경제는 프랍 트레이더(Proprietary Trader, 자기자본투자 트레이더)를 **"칼날 위를 걷는 자"**로 표현하며 업계의 가혹한 성과주의 문화를 묘사했습니다. 특히 **"월 5% 손실률 기록 시 그달 거래 금지, 6개월 10% 손실 시 계약 해지"**라는 규율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 원칙**입니다. 브런치에 기고된 한 퀀트 트레이더의 에세이는 **"장세와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 1년 단위 재계약, 철저하게 용병 집단의 마인드"**라고 업계 문화를 표현했습니다. 나무위키 투자은행 항목도 **"트레이더는 철저한 성과제이므로 무명 트레이더도 능력이 우수하면 저연차에도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당일 Loss가 크면 불면증·불안증세에 시달리고 심각한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고 언급합니다. 반대로 세일즈(Sales) 직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크레딧(신뢰관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이는 트레이더와는 다른 성격의 심리적 자원을 요구합니다. 지원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① **회복탄력성(Resilience)** - 손실 후 빠른 정상 복귀, ② **기록 습관** - 거래 이유·종료 사유·감정까지 모두 기록, ③ **강한 체력** - 장시간 집중 근무 견디기, ④ **균형 감각** - 일과 삶의 분리를 갖추고 있음을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구체적 경험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7. 한화투자증권 JD 상의 구체적 요구 역량

과거 한화투자증권 채용공고(2023년 하반기 JD 기준)를 분석하면, Trading 직무는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됩니다. 첫째, **채권·파생결합증권 마케팅/세일즈/기획** 직무는 국내외 채권 및 금리상품 분석·조달, 파생결합증권(ELB·ELS·DLS)·구조화상품 기획·가격결정·마케팅을 수행하며, 요구 역량은 상경계 전공, 금융상품·파생상품 지식, MS Office·영어·데이터분석 능력입니다. 둘째, **High Frequency Trading(HFT) 운용·시스템 개발** 직무는 시장데이터 분석, 매매전략 리서치, 매매시스템 개발·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요구 역량은 **Java/C++/Python 프로그래밍, OOP·Design Pattern 지식, Linux 환경 숙련**으로 훨씬 기술적입니다. HFT 직무는 일반 서류 전형 외에 **별도 코딩 테스트**를 거치며, 이는 한화투자증권이 **기술 기반 Trading 역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인영업본부 JD는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규정, 경제분석, 재무/기업/증권/시장 분석, Excel VBA·Macro 활용, 비즈니스 영어"를 요구하며, 이는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복합적 역량**을 강조합니다. Trading 지원자는 본인의 경험과 역량이 이 두 갈래 중 어디에 더 적합한지를 명확히 포지셔닝하고, 해당 JD의 요구 역량에 **맞춘 타깃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8. 인재상과 조직문화에 대한 면접 활용 전략

면접에서 인재상 관련 질문(예: "본인의 강점이 한화 핵심가치와 어떻게 맞는가")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화의 3대 핵심가치 중 특히 '정도'가 Trading 직무의 본질과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Trading은 매 순간 수익 기회와 손실 리스크가 공존하는 환경이며, 단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능력이 장기 성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OOO 경험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킨 사례가 있으며, 이는 트레이더로서의 손절 규율·컴플라이언스 준수와 직결됩니다. 또한 '헌신'은 팀 기반 Trading 환경에서 세일즈-트레이더-리서치-리스크팀과의 협업으로, '도전'은 RWA Hub 비전 하에서의 신상품·신전략 개발로 각각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문화 질문(예: "한화투자증권의 문화가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에는 "전통 한화 DNA의 규율·정통성이 Trading의 손절 규율과 결이 맞고, 장병호 대표 체제의 'Buidler' 문화가 제가 가진 Python·백테스팅 기반의 신사업 탐색 경험과 결합되는 교차점에서 기여하겠다"는 서사가 효과적입니다. 소프트스킬 검증 질문(예: "큰 손실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에는 기록·복기·회복탄력성 키워드를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함께 제시하며, 단순히 "극복했다"가 아닌 "어떤 구체적 방법론으로 재발을 방지했는가" 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4-9. Buidler 문화에 어필하는 자기 PR 구조

장병호 대표 체제의 'Buidler' 문화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기 PR 구조가 유효합니다. 첫째, "문제 해결 경험 중심의 스토리"로 구성하며, 단순 스펙 나열이 아닌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어떻게 접근했으며, 무엇을 만들어냈는가"의 3단 구조를 활용합니다. 둘째, "정량적 결과 제시"로 Python 스크립트 자동화로 몇 시간 단축, 백테스팅 샤프비율 X 달성, 모의 트레이딩 수익률 Y% 등 숫자로 입증합니다. 셋째, "실패 경험과 복기"를 포함시켜 성공담만 있는 이력서보다 **실패와 학습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것이 Buidler 정신에 부합합니다. 넷째, "지속적 학습 증명"으로 CFA 준비 현황, 관련 책/논문 리딩 리스트, 오픈소스 기여, 블로그/깃허브 운영 등 **현재 진행형 학습 증거**를 제시합니다. 다섯째, "한화투자증권의 특정 비전과의 연결"로 RWA Hub·동남아·PI 중 본인이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명시하고, 그 영역에서의 구체적 기여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적 자기소개서의 "성장과정 - 성격 - 경험 - 포부" 구조와 질적으로 다르며, 한화투자증권의 전환기 인재상에 더 적합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4-10.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인재상·조직문화 분석의 핵심 메시지는 "**한화투자증권은 전통과 전환의 교차점에 있다**"는 인식입니다. 지원자는 전통 한화 DNA(도전·헌신·정도)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장병호 대표 체제의 Bidler 문화에 공명하는 융합적 정체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Trading 도메인의 8대 역량(리스크 감각·수학/통계·스트레스 내성·시장 호기심·순발력·원칙/규율·팀플레이·프로그래밍)은 단기간에 학습으로 획득할 수 없는 **체질화된 능력**이므로, 지원자는 본인의 과거 경험 중 이러한 역량이 발현된 구체적 사례를 최소 3~4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Trading 환경의 심리적 특수성(매일의 P&L 변동, 철저한 성과주의, 1년 단위 재계약 문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적 직무 이해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5장. 직무 분석 - 본사영업 Trading

5-1. 트레이더의 일간 사이클 - 새벽부터 자정까지

본사영업-Trading 직무의 **일간 사이클**은 글로벌 시장의 시간대를 따라가는 **거의 24시간 연속 흐름**입니다. 채권/FICC 트레이더의 전형적 하루는 07:00~07:30 출근으로 시작해, 간밤 미국채 금리 변동·FOMC 위원 발언·블룸버그 헤드라인·아시아 시장 개장 전 뉴스플로우를 **약 30분간 집중 스캔**합니다. 08:00에는 당일 발행 예정 채권·전일 미국 채권 증가·오버나잇 레포 금리를 체크하고, 해외 금리 변동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08:30 **모닝미팅**에서는 리서치 시황/전략팀이 그날의 매크로 코멘트·섹터별 뷰·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공유하며, 각 데스크장(Head Trader)이 전일 실적과 당일 전략을 발표합니다. 이 미팅은 Trading 본부 전체가 **같은 시장 인식을 공유**하는 핵심 순간이며, 신입 트레이더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의무 일정입니다. 09:00 국내 시장이 오픈하면 **Bloomberg Terminal·Refinitiv Eikon·연합인포맥스**로 호가와 체결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동시에 자체 개발한 **P&L 대시보드**를 통해 포지션 손익을 분 단위로 추적합니다. 10:30과 14:00에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한국 기준금리 결정·미국 CPI·FOMC 등)가 있을 경우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며, 발표 직후 몇 분간의 시장 반응이 하루 P&L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15:30 장 마감 후에는 **P&L 마감·포지션 리포트 작성·다음날 전략 수립**을 약 1~2시간에 걸쳐 수행하며, 17:00~19:00에는 미국·유럽 시장 오픈을 모니터링합니다. 오버나잇 포지션이 있는 경우 새벽 시간대에도 휴대폰 알람을 통해 시장을 주시하며, 이는 트레이더의 **24시간 긴장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5-2. 주간·월간·연간 사이클의 리듬

주간 사이클은 월요일 주간 전략 리뷰(지난주 P&L 복기 + 이번주 주요 이벤트 정리)로 시작해, 화~목요일 실시간 모니터링·백테스팅·신규 포지션 검토·체결엔진 개선 업무, 금요일 주간 P&L 정리·익주 매크로 이벤트(경제지표·정책 결정·기업 실적 발표 등) 대응 준비로 구성됩니다. **월간 사이클**은 월초 전월 실적 리뷰·리스크 한도 재확인·월간 전략 업데이트, 월 중 포지션 관리·신상품 개발·리서치 회의, 월말 P&L 마감·실적 보고·인센티브 추정으로 반복됩니다. 특히 **월 5% 손실 룰**이 적용되는 환경에서 월말 P&L 추세는 트레이더의 심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월 중후반 손실이 누적된 경우 **방어적 포지셔닝**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간 사이클**은 1월 KPI·BEP(Break-Even Point) 설정과 자본 배분 확정, 분기별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한도 재승인과 성과 중간점검, FOMC(연 8회)·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연 8회)·옵션 만기일(매월 둘째 목요일)·주요 기업 실적 발표 시즌 등 **변동성 집중 이벤트 대응**, 12월 연간 성과 평가·인센티브 확정·재계약 협상(1년 단위 재계약이 일반적인 프랍 트레이더의 경우)으로 완결됩니다. **6개월 10% 손실 룰**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적용되며, 이는 트레이더로 하여금 단기 수익 추구보다 **꾸준한 리스크 조정 수익(Risk-Adjusted Return)**에 집중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니다.

5-3. PI(자기자본) vs 세일즈트레이딩의 근본적 차이

Trading 부문 내에서 **PI(Proprietary Investment/Trading, 자기자본투자)**와 **세일즈&세일즈트레이딩(Sales & Sales Trading)**은 목적·수익원·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직무입니다. **PI 트레이딩**은 회사 고유자본을 운용해 **절대수익(Absolute Return)**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수익원은 ① 방향성 베팅(Directional Trading), ② 차익거래(Arbitrage), ③ 변동성 매매(Volatility Trading), ④ 상대가치(Relative Value) 전략입니다. 평가는 **절대평가(목표 수익 달성 여부)**이며, 성과급은 수익의 **3~10%**(중소형 파생 특화 증권사의 경우 최대 50%)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월 **5%·6개월 10% 로스컷** 룰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반면 **세일즈&세일즈트레이딩**은 기관 고객의 주문 체결·마켓메이킹·리스크 이전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수익원은 ① 수수료(Commission), ② 매수-매도 스프레드(Bid-Ask Spread), ③ 고객 플로우에서 파생되는 포지션 이익(Flow Trading) 등입니다. 평가는 **상대평가(고객 크레딧 누적 + 플로우 수익)**이며, 성과급은 **고정연봉+인센티브(누적형)** 구조로 PI 대비 안정적이지만 상한도 낮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중소형 증권사는 파생상품 투자 비중이 80% 이상**이며, 대형사는 "리서치센터 보고서와의 상충 제약(매수요건 제시 종목 24시간 내 매도 금지 등)"이 있어 PI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중형사로서 PI·구조화상품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보유하며, 2025년 전략운용본부 PI 손익 306억원이 이를 입증합니다.

5-4. 상품별 트레이딩의 세부 특성과 필요 지식

주식(Equity) 트레이딩은 장내 거래 중심으로 고빈도 매매(HFT)·프로그램매매·차익거래(Index Arbitrage)·블록딜(대량매매) 등이 주요 영역입니다. 필요 지식은 기업 재무제표 분석, 밸류에이션(PER·PBR·EV/EBITDA·DCF), 섹터 분석, 기술적 분석이며, HFT의 경우 **매매시스템 개발 역량(Java/C++/Python)**이 추가 요구됩니다. **채권(Bond/FICC) 트레이딩**은 대부분 **장외 상대매매(OTC)**로 이루어지며, 금융기관·법인 간 대량매매가 주를 이룹니다. 국고채는 **딜러 간 경쟁매매(IDB, Inter-Dealer Broker)**를 통해 거래되며, 크레딧 채권(회사채·금융채)은 신용분석이 핵심입니다. 필요 지식은 Duration·Convexity·Key Rate Duration, Yield Curve 분석, 신용분석(Credit Spread·Rating·Recovery Rate), OIS/LIBOR 커브 등입니다. **파생(Derivatives) 트레이딩**은 주가지수 선물·옵션(KOSPI200)·KTB선물·통화선물 중심이며, 감마·베가·세타로 관리가 핵심입니다. 2011년 도이치 옵션쇼크 이후 동시호가 시간 변동성 규제가 강화됐으며, 이는 옵션 만기일 거래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FX(외환) 트레이딩**은 딜링룸 중심의 **24시간 시장** 특성을 가지며, 오버나잇 포지션과 스왑(FX Swap·Currency Swap)이 주요 도구입니다. **구조화상품(ELS/DLS/ELB) 트레이딩**은 Structurer가 가격결정(Pricing)·헷지 전략 수립·세일즈 설명을 담당하며, 한화투자증권은 2010~2011년 금감원 '우수 채권전문딜러' 선정 등 역사적으로 구조화 영역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필요 지식은 옵션 가격결정 모델(Black-Scholes·Binomial Tree·Monte Carlo),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변동성 모델링 등입니다.

5-5. 이해관계자 맵 - 내부 협업 구조

Trading 직무는 결코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다층적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입니다. **IB 본부**는 딜 소싱(Deal Sourcing)과 인수(Underwriting)를 담당하며, Trading은 IB가 인수한 회사채·구조화상품을 유통시장에 분배하고 헷지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리서치센터**는 시장·섹터 분석·매크로 리포트를 제공하며, Trading은 이를 전략 수립에 활용하지만 **'24시간 매도 금지'** 룰 등 내부통제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리스크관리부**는 VaR·포지션 한도·스트레스테스트를 관리하며, Trading의 모든 포지션은 리스크관리부의 사전 한도 내에서만 진입 가능합니다. 신규 상품이나 한도 초과 포지션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준법감시(Compliance)**는 내부자거래·차이니스월·시장질서교란행위 등을 감시하며, Trading 직원은 모든 개인 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매를 사전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오퍼레이션/Middle & Back Office**는 결제·정산·회계 처리를 담당하며, Trading이 체결한 모든 거래는 이 부서를 거쳐 최종 완료됩니다. **IT본부**는 HTS/MTS/매매시스템·Bloomberg Terminal·자체 P&L 시스템을 관리하며, 시스템 장애 시 Trading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이 다층 구조에서 Trading 직원은 **기술적 역량 외에 정치적 감각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춰야 하며, 이는 JD에 명시되지 않지만 실무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5-6. 이해관계자 맵 - 외부 카운터파티 네트워크

외부 이해관계자는 더욱 광범위합니다. **기관 고객**으로는 국민연금공단(NPS)·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자산운용사(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등), 헤지펀드·사모펀드, 기업 법인(유휴자금 운용)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세일즈트레이딩의 주된 고객**입니다. **타 증권사**는 경쟁자인 동시에 마켓메이킹 카운터파티이며, 특히 국고채 딜러 간에는 IDB를 통한 일상적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외국계 IB**(Goldman Sachs·Morgan Stanley·JP Morgan·Citi·UBS 등 서울지점)는 크로스보더 딜·헷지·프라임 브로커리지에서 주요 파트너이며, Trading 직원은 이들과 **영어 기반의 실시간 협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IDB(장외중개회사)**는 Tullett Prebon·BGC Partners·ICAP 등이 있으며, 대형 채권·파생 거래의 중개 역할을 합니다. **한국거래소(KRX)·예탁결제원(KSD)**은 규제·결제 인프라 제공자이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감독기관입니다. 기관 고객과의 관계 구축은 **수년간의 신뢰 누적**을 요구하며, 이는 세일즈 직무의 핵심 자산인 **크레딧**입니다. 외국계 IB와의 협업은 **영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문화적 이해·글로벌 매크로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이는 한화투자증권의 글로벌 전환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5-7. 필수 자격증과 우대 자격증

Trading 직무 수행을 위해 **법정 필수 자격증**은 ①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협회 주관, 2026년 5월 10일 45회 시험 시행 예정, 채권·주식·파생 등 금융상품 운용에 필수), ②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 판매·자문 시 필수), ③ **금융투자분석사**(리서치 업무 수행 시 필수)입니다. 이 자격증들은 한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기 위한 **라이선스**이며, 입사 전 미리 취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국제 우대 자격으로는 ①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가 가장 대표적이며, 한화투자증권은 2025년 기준 CFA 회원 8명을 보유해 중형사 중 상위권입니다. CFA는 3단계(Level 1·2·3)로 구성되며, 각 단계 합격률은 40~50% 수준으로 도전적이지만 **포트폴리오 관리·파생상품·채권·주식 분석 전 영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표준 자격입니다. ② **FRM(Financial Risk Manager)**은 GARP(Global Association of Risk Professionals) 주관으로 **VaR·스트레스 테스트·리스크 모델링** 초점의 자격이며, Trading에서 리스크관리 역량을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명서입니다. ③ **CAIA(Chartered Alternative Investment Analyst)**는 대체투자(헤지펀드·사모펀드·부동산·원자재) 전문 자격으로 PI 영역에 유용하며, ④ **CMT(Chartered Market Technician)**는 기술적 분석 전문 자격으로 단기 트레이딩에 유용합니다. 이 외에도 **CPA·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은 특수 영역(회계 기반 트레이딩·규제 대응)에서 우대됩니다.

5-8. IT·프로그래밍 스킬의 절대적 중요성

2020년대 중반 이후 Trading 직무에서 **IT·프로그래밍 스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Python**은 가장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언어로, pandas·numpy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matplotlib·seaborn을 통한 시각화, scikit-learn·TensorFlow를 활용한 머신러닝 모델링, backtrader·zipline을 통한 백테스팅이 기본 역량입니다. Bloomberg Terminal의 Python API(BLPAPI)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도 중요 스킬입니다. **SQL**은 시장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 정보를 추출하는 필수 언어이며, 특히 대형 거래 데이터베이스(Tick Data, Order Book Data)를 다룰 때 유용합니다. **Excel VBA**는 한화투자증권 법인영업본부 JD에 명시된 요구 스킬이며, 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무에서 반복 업무 자동화·P&L 리포트 작성·매크로 기반 가격 계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Java/C++** 는 HFT·매매시스템 개발에 필수이며, 특히 **Latency(지연시간) 최소화**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HFT 영역에서 네이티브 컴파일 언어가 선호됩니다. **R**은 통계·계량 분석에, **MATLAB**은 수치해석·시뮬레이션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Python이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Bloomberg Terminal·Refinitiv Eikon·연합인포맥스 Infomax**는 데이터 터미널 숙련도가 요구되며, 각 터미널의 고유 단축키·함수·API를 **유창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이러한 스킬을 단순히 "할 줄 안다"가 아닌 **구체적 프로젝트 경험**(예: "Python으로 국고채 YTM 계산기를 만들어 엑셀 대비 처리 시간을 10배 단축했다")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5-9. KPI와 평가 포인트의 다층 구조

Trading 직무의 KPI와 평가 포인트는 다층적입니다. 첫째, **운용수익 P&L**이 가장 기본적이며, 업계에서는 시니어 트레이더 **BEP(Break-Even Point)**가 연 7억원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개인 인건비·사무실 비용·시스템 사용료·자본 할당 비용 등을 모두 커버하는 수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만이 **순수 기여**로 인정됩니다. 둘째, **위험조정수익률(RAROC, Risk-Adjusted Return on Capital)**이 주요 평가 지표로, 공식은 $RAROC = (\text{예상수익} - \text{예상손실}) / \text{경제적자본}$ 이며,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도 이 개념을 공식 정의하고 있습니다. RAROC는 단순 P&L이 아닌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성**을 측정하며, 이는 현대 리스크 관리의 표준입니다. 셋째, **VaR(Value at Risk) 준수**는 99% 신뢰구간·10영업일 보유기간 기준으로 일일 산출되며, 백테스팅(과거 적중률 검증)과 스트레스테스트(극단 상황 시뮬레이션)를 통해 정확성이 검증됩니다. 넷째, **손절(Loss-cut) 률**은 앞서 언급한 월 5%·6개월 10% 기준이 일반적이며, 일부 회사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섯째, **포지션 한도**는 상품별(주식·채권·파생)·만기별(단기·중기·장기)·통화별(원화·달러·유로 등)로 세분화되어 관리되며, 한도 초과 시 즉시 축소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샤프비율(Sharpe Ratio)**은 변동성 대비 초과수익을 측정하며, 연간 샤프 1.0 이상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일곱째, **최대낙폭(Maximum Drawdown)**은 누적 수익 곡선의 최대 하락폭으로, 낮을수록 안정적 운용을 의미합니다.

5-10. 가상 워크플로우 - 국고채 트레이더의 금통위 당일

Trading 직무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국고채 트레이더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당일** 가상 워크플로우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7:30 출근하며 간밤 미국채 10년물이 -5bp 하락(랠리)했고,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 헤드라인을 Bloomberg Terminal로 확인합니다. 아시아 시장 개장 전 일본·호주 채권 시장 동향도 빠르게 스캔하며, 이는 한국 시장의 개장 방향성을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08:00 모닝미팅 준비를 위해 전일 자신의 포지션 P&L을 재확인하고, 금통위 시나리오별 손익 민감도를 계산합니다. 08:30 **모닝미팅**에서 이코노미스트가 "한은 기준금리 동결 but 성명서 문구는 완화적 포워드가이던스"로 전망을 제시하며, 매크로 전략팀이 이에 따른 수익률 곡선 변화를 예측합니다. 리스크팀은 오늘의 VaR 한도와 Stop-Loss 기준을 재확인합니다. 08:45 데스크로 복귀해 포지션을 최종 점검하니, 국고 3년·10년 롱 북을 유지 중이고 Duration은 포트폴리오 대비 +0.3년 오버웨이트 상태입니다. 09:00 **국내 시장 개장**과 함께 국고3년 선물이 1틱 상승 출발하며, Bloomberg·연합인포맥스로 IDB 호가와 체결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기관 고객으로부터 "국고 10년 500억원 매수 인콰이어리"가 들어오면, 세일즈트레이더가 내부 재고와 시장 호가를 종합해 **2초 내 프라이스 제시**합니다. 10:00 금통위 발표 30분 전부터 **포지션 조정**을 시작하며, 방어적 스탠스로 Duration을 +0.3에서 +0.1로 축소합니다.

11:30 **금통위 동결 발표 + 성명서 비둘기파적** → 10년물이 -4bp 랠리하며, 사전 축소된 포지션 덕분에 과도한 손실을 피하면서도 롱 포지션의 차익실현 일부를 단행해 **당일 +6,000만원 수익**을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시에 여러 자산 간 스프레드(국고 3Y-10Y·국고 10Y vs 회사채 AA-·국고 vs 스왑 등)를 모니터링하며, 상대가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치(RV) 전략 기회를 탐색합니다. 14:00 **익일 3년 국고채 입찰 대비 스트립 헷지**를 준비하며, 입찰 전일 포지션 축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15:30 장 마감 후 **일일 VaR 리포트**를 리스크관리팀에 송부하고, 당일 P&L +1.2억원을 확정해 내부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16:00 Structurer팀으로부터 "금리 하락 시나리오에 맞춘 3년 만기 스텝다운 ELB 구조"에 대한 프라이싱 요청을 받아, 옵션 가격결정 모델로 이론가를 산출하고 헷지 비용을 반영한 최종가를 제시합니다. 17:00 **미국 CPI 발표 D-1**이므로 오버나잇 포지션 축소를 결정하고, 야간 트레이더에게 모니터링 지침을 인수인계합니다. 19:00 퇴근 전 당일 복기 노트를 작성하며, 금통위 대응 전략의 성공 요인과 개선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거시 이벤트 해석 → 포지션 전략 수립 → 실시간 헷지 실행 → 리스크 리포팅 → 복기 학습**의 완결적 루프를 보여주며, Trading 직무의 **지적·심리적 강도**를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5-11. 한화투자증권 Trading 부문의 특수성

한화투자증권 Trading 부문은 다른 증권사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집니다. 첫째, **자본 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포지션 빌딩이 제한**되며, 이는 오히려 **정교한 상대가치 전략·단기 회전을 중심 전략**에 특화된 역량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5년 전략운용본부 PI 손익 306억원**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입증하듯, 한화투자증권은 **중형사 중 PI 영역에서 최상위권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자에게 PI 데스크 진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RWA Hub 비전 하에서 토큰증권 마켓메이킹·디지털자산 스프레드 거래 등 신영역 진입 기회**가 열리고 있으며, 2027년 STO 본격 시행에 맞춰 이 영역의 인력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동남아 거점(베트남 Pinetree·인도네시아 Ciptadana·싱가포르 법인)과의 크로스보더 트레이딩 기회**가 존재하며, 한국-동남아 간 금리차·환율 변동성·주가 상관관계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구조화상품(ELS·DLS·ELB) 영역에서의 역사적 강점**이 있어, 2010~2011년 금감원 '우수 채권전문딜러' 선정 등 업계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영역의 Structurer 진입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여섯째, **한화그룹 계열사(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자산운용)와의 내부 시너지**로 장기 안정적 기관 수요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12. 지원서·면접에서의 직무 적합성 입증

Trading 지원자가 지원서와 면접에서 직무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왜 한화투자증권인가"** 라는 근본 질문에 ① 중형사 특유의 PI·구조화상품 특화, ② 2025년 전략운용본부 PI 손익 8배 급증, ③ RWA Hub 비전으로 STO 트레이딩 신시장 선점, ④ 동남아 크로스보더 딜 소싱 가능성의 네 가지 층위로 답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자격·스킬 세트를 "투자자산운용사·파생권유자문 + CFA 진행 + Python 백테스팅 + VaR 이해"의 조합형 패키지**로 제시하고, 각 요소가 구체적 프로젝트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손실 관리 경험"**을 구체적 숫자와 함께 풀어내되,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실패-복기-개선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의 트레이딩에서 -8% 손실 후 일주일간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 일지를 재분석한 결과, 감정적 진입이 원인임을 파악해 엔트리 체크리스트를 도입한 결과 이후 3개월 +15% 수익 달성"과 같은 서사입니다. 넷째, **팀 협업 사례**를 제시할 때는 단순 협업이 아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의 건설적 협업"** 경험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최신 시장 이슈(2026년 1월 거래대금 62조·ETF 315조·STO 법제화)**에 대한 본인의 해석과 한화투자증권 Trading에 미칠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13.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직무 분석의 핵심 메시지는 **"Trading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평생의 지적 모험"**이라는 인식입니다. 하루 24시간 시장을 따라가는 생활 리듬, 매 순간 손익이 갈리는 심리적 긴장, 철저한 성과주의 평가 체계, 지속적 학습 요구 등 Trading 직무는 **강도 높은 자기 관리**를 요구합니다. 지원자는 이러한 직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강도 높은 환경이 오히려 본인에게 매력적"**이라는 진정성 있는 동기를 제시해야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중형사 포지션은 주니어 트레이더가 실질적 의사결정 경험을 쌓기에 유리한 환경이며, RWA Hub 비전은 10년 후 시장 리더가 될 수 있는 성장 기회입니다. 현재 역량에 미래 학습 의지를 결합한 성장형 인재상을 제시하는 것이, 전환기 한화투자증권의 Trading 직무에 가장 적합한 전략입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자본시장연구원 2026년 증권산업 주요 이슈 —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year=2026&zcd=002001016&zno=1897&cno=6714
2. 스트레이트뉴스 지난해 증권사 순익 9.2조 최대 대형사 쏠림 —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830>
3. 대한금융신문 2025년 상반기 국내 증권사 별도 자기자본 현황 —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38>
4. 이콘밍글 역대급 불장이 만든 증권사 사상 최대 성적표 — <https://econmingle.com/economy/securities-firms-surpass-banks-2-trillion/>
5. 한국금융신문 연내 1호 IMA 6호 초대형 IB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4091157259914179ad43907_18
6. 머니S 토큰증권 시대 연다 STO 법 통과 — <https://www.moneys.co.kr/article/2026011515501991223>
7. 헤럴드경제 367조 토큰증권 시장 열린다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56465>
8. 금융위원회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85924>
9. 매거진한경 ETF 2026 유망 테마 300조 돌파 —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601187642c>
10. 트레이딩이코노믹스 한국 기준금리 2.50% 동결 — <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interest-rate>
11. 한국금융신문 증권사 IB 수수료 V자 회복 KB 한투 투톱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12210815109687dd55077bc2_18
12. 더벨 미래에셋증권 트레이딩사업부 출범 S&T 채권 파생 PI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8121344162840105278>
13. 인베스트조선 1조 클럽 4곳 이상 증권사 실적 기대 —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1/27/2026012780198.html
14. 리포테라 2025년 증권 선물회사 영업실적 9조 6455억원 — <https://www.reportera.co.kr/economy/securities-firms-record-profit-2025-kospi-bull->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본사영업-Trading

[market/](#)

15. 아시아투데이 한화투자증권 3분기 순이익 214억 전년비 533% 증가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3010007271>
16. 녹색경제신문 이익 3600% 폭증에도 배당 0원 한화투자증권 4년째 무배당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7932>
17. 인사이트코리아 장병호 한화증권 대표 RWA 허브 깃발 꽃는 다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55>
18. 머니S 한화투자증권 장병호 부사장 신임 대표이사 선임 —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90116585119510>
19. 비즈니스포스트 Who Is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4056
20. 더구루 한화투자증권 토큰증권 주도권 선점 미국 시큐리티이즈 투자 —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3601>
21. 한국금융신문 토큰증권 법제화 초읽기 증권가 3년만의 시장 개화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12210819121731dd55077bc2_18
22. 시사저널e 메리트 키움 한화증권 자본 순위 상승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339>
23. 더벨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 서막 한화생명 계열분리 현실화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12170957076840102838>
24. 한국금융신문 한화저축은행 한화생명 품으로 김동원 금융지주사 진용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02317485560878a55064dd1_18
25. 한화투자증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 PDF — https://www.hanwha.co.kr/assets/data/philosophy/Hanwha_Investment&Securities_Sustainability_Report_2025.pdf
26. 뉴시스 한화투자증권 3분기 영업이익 376억원 전년비 578% 증가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3_0003402182
27. 이투데이 한화투자증권 미국 Kresus 디지털 지갑 MOU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34906>
28. 이투데이 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5.94% 매각 계획 없음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8835>
29. 자소서울 한화투자증권 2026 상반기 공채 — <https://jasoseol.com/recruit/103561>
30. 한화인 핵심가치 도전 헌신 정

